

#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金 德 鉉\*\*

이 논문은 진주지역을 사례로 생산자 서비스와 제조업의 지역적 연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경제화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이다.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은 일반화된 생산자서비스는 가까운 진주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지향이 강하다. 제조업 업종별 생산자서비스의 연계패턴은 유사하며, 진주와 경남지역 출신 제조업체 경영자들이 타 시도 출신자보다 강한 지역연계를 보였다.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는 현 단계에서는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의 역할보다 지역내의 제조업들에게 각종 생산기술관련정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진주지역의 대기업은 고차서비스를 지역외부로부터 조달하며 소규모 기업은 지역내 생산자서비스 이용상태가 저조하다. 지역에서 공급되는 생산자서비스가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높거나 아니면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되지 못한다는 적실성의 문제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생산자서비스 육성이라는 지역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主要語 :**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 공공적 생산자서비스, 지역적 연계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선진 산업국가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산업 구조 변화는 서비스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으로서 독립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전통적 소비자서비스보다는 근대적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있다. 제조업의 자동화로 직접생산직 고용이 감소하고 전문화·분업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 수요를 외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가 급성장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주요 요인으로 대두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 기술개발, 지식의 흐름을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이어주는 매개체인 생산자서비스를 지역적으로 충

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관건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서비스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불균등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생산자서비스가 수도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지방 중심도시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내에서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생산활동을 정체시킨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개입전략으로서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재배치 정책은 제조업에 비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적으면서도 고급노동의 고용효과를 크기 때문에 능률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의 하나인 공공적 서비스를 지역적으로 재배치하는 정책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생산자서비스와 지역경제 발전

\* 이 논문은 199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지리전공) 부교수

##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전국적 차원에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분포, 수도권에서 제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의 연계, 그리고 일부지역의 제조업과 연계현황의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가 지역과 형성하고 있는 연계에 대한 실증적 종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는 그 지역발전에 필요한 생산자서비스의 수준과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기반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생산자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를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서비스 경제화 현상을 확인하고 입지 특성을 살펴 본다. 나아가 연구지역인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전국적 추세와 비교 검토한다. 둘째, 진주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를 살펴 본다. 특히 기업의 특성에 따른 생산자서비스 연계를 검토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생산자서비스 수준 및 공간연계의 성격을 파악한다. 셋째,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의 제조업에 대한 공간연계를 분석하여 공간연계의 특성과 서비스의 역할을 살핀다. 넷째, 앞에서 이루어진 분석들을 종합하여 생산자서비스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용어의 개념정의, 연구 방법 및 구성

연구지역인 진주지역은 지방중심도시에 해당하는 진주(시)와 그 배후지에 해당되는 서부경남지역을 가르키는 말로서, 실제 사용할 때에는 진주와 서부경남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서부경남의 행정구역 범위는 진주와 사천 2개 시와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7개 군으로 설정하였다<sup>1)</sup>. 이 권역은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방도시생활권으로서 진주생활권과 농촌도시생활권으로서 거창생활권을 포함한다.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중심지기능중의 하나인 생산자서비스가 중심지인 진주에서만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다.

생산자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가계에 대

한 직접적 서비스가 아닌 생산자에 대한 중간적 서비스로 정의된다. 그러나 생산자서비스에 포함시키는 산업표준분류상의 업종들은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분석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측면의 생산자서비스 개념을 기업활동자체에 대한 사업서비스는 물론,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사회서비스도 포함시켰다(이희연, 1990). 그 이유는 특히 학교연구소나 상공회의소 및 공공연구소 등 공공적 서비스가 분류상 사회서비스에 속하지만 진주와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중추적인 사업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활용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업은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그 주된 활동대상을 가계부문에 두고 있다고 보아 생산자서비스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인 SCI 8군에 속하는 금융업(SCI 81), 보험업(SCI 82), 사업서비스업(SCI 84), 그리고 사회서비스(SCI 93: 교육, 학술연구기관, 의료보건, 사회복지,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를 생산자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연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요측면의 자료는 1차적으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었다. 공급측면의 자료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적 생산자서비스기관인 경상대학교부설 생산기술연구소, 한국전직연구원, 진주상공회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의 사업실적을 입수하고 방문면담으로 보충하였다.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총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를 이용하였다. 우편설문조사는 진주시와 삼천포시의 상공회의소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층화추출하여 1993년 8월부터 1994년 2월 기간동안에 실시되었으며 200부를 발송하였으나 45부만이 회수되었다. 그러나 답변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한 33부만이 분석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분석대상 업체와 회수율이 낮은 것은 원래 진주와 삼천포상공회의소 회원 업체 수가 적을뿐아니라 회원업체 상당수가 영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편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면담조사는 1995년 9월에서 1996년 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여기서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전화로 보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밝혔다. 제2장은 이론적인 부분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생산자서비스의 정의, 성장, 분류와 지역경제발전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및 그 전개과정과 공간적 입지특성을 살펴 보고, 진주 지역의 형편을 전국과 비교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진주지역의 생산자서비스와 제조업의 공간연계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정책적 함의를 추구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2. 문헌연구

### 1) 생산자서비스: 정의, 분류, 성장

일반적으로 서비스 상품은 무형이고 일회적이며, 대부분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개별접촉을 필요로 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O'Farrell and Hitchens, 1990), 또한 그 산출 형태가 물리적 생산품이 아니라 생산시점에서 소비되어 저장, 운송, 재사용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Allen, 1988, 91-135).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시장과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서비스가 수행하는 역할을 간과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을 재정의 재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Marshall, Damesick and Wood, 1987, 576-578).

서비스산업 분류문제에 관한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식은 수요시장의 특성에 기준을 두고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로 크게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구분된 생산자서비스란 '재화나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중간 서비스나 중간 수요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Mashall, Wood and Daniels, 1987, 35-36). 또한 생산자서비스는 재화나 다른 서비스

의 생산에 대한 투입요소로, 즉 생산과정의 간접적인 요소로 제공되며 주변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되거나(Coffey and Polèse, 1989, 14), 재화와 다른 서비스의 투입요소로 제공되는 중간수요의 기능을 하면서 정보·기술변화·지식의 흐름을 생산으로 이어주는 변화매개체로 정의되기도 한다(Coffey and Bailly, 1990, 1619). 이처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를 생산자서비스와 최종수요자인 개인에게 공급되는 소비자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이 서비스산업의 수요특성의 변화에 대한 이해나 입지의 공간적 집적과 그 변화 설명에 유용하고(Mashall, 1985, 1161-1162), 서비스와 다른 산업활동간의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된다(Gillespie, Goddard, Robinson, Smith and Thwaites, 1985, 140-148).

생산자서비스가 최근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① 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의 증가, ② 공급측면에서의 증가, ③ 다른 부문의 산업들과 구분되는 서비스산업 자체의 특성의 측면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제조업내의 소규모 연계(batch)생산과 디자인·품질·생산품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주문생산의 증가가 생산과정에 서비스의 특성을 많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이다(O'Farrell and Hitchens, 1990, 169-170).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체적인 서비스수요는 더욱 증가하며(Polèse, 1980, 154-155), 대규모의 복잡한 다입지 조직의 성장에 의해서도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Marshall, 1984, 357). 생산자서비스 수요증가는 제조업측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부문 자체의 수요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공급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위시한 기술발달에 의한 업무량의 확대(Daniels, 1987b, 569), 기반산업으로의 발전, 수출무역의 증대, 단일시장에서 특화시장의 개척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Allen, 1988b, 124-141) 등에 의해서 성장한다. Perry

##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1990, 195-209)는 Auckland지역을 사례로 서비스의 수출증대, 다른 서비스로부터의 수요, 생산 혁신 등 공급측면에서 사업서비스의 실질적 확산이 고용증대의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급속한 고용성장의 원인을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생산의 증가속도보다 고용의 증가가 빠르다는 것에서 찾기도 한다(Daniels, 1985, 113).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의 다수는 서비스부문자체의 특성보다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서비스의 실질적인 증가가 성장요인이라고 주장한다(Marshall, Wood and Daniels, 1987, 37).

### 2) 생산자서비스와 지역경제발전

대부분의 지역발전계획에서 지역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제조업을 채택해 왔다. 제조업이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으로서 고용, 인구, 하부구조의 확충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기능을 외부화하는 추세가 확대되자, 생산자서비스로 대표되는 간접생산활동이 지역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이 주장되고 있다(Gillespie and Green, 1987, 400).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을 이루는 주변지역 경제에서 지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생산자서비스의 범위와 질적·가격적 경쟁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O'Farrell and Hitchens, 1990). 한국에서도 낙후지역 발전에 지역과의 연계가 약한 다공장기업의 분공장 유치 전략보다 생산자서비스부문의 확충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희연, 1990).

생산자서비스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서비스는 외부지역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수출기반산업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으며, 둘째 그 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에 생산자서비스가 기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의 관점은 생산자서비스가 지역경제활동에 덜 의존적이고, 본질적으로 지역간

교역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제적 수요도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함으로써 지역의 기반산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정책은 외부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하부구조 확충정책이 필요한데, 하부구조의 확충은 물리적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같은 사회적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생산자서비스는 지역 제조업체에 중간투입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쟁력의 강화를 가져오는 사회간접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 고용효과 외에도, 간접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창출하고 지역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토록 지원다(Kirn, 1987). 지금까지 지역발전정책은 주로 물리적 하부구조의 확충을 수단으로 하였지만, 이제는 생산자서비스부문에의 투자가 주목된다.

생산자서비스는 대기업 본사와 강한 지리적 기능적 연계를 가지기 때문에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Wheeler, 1984). 그러나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는 생산자서비스의 적절한 지역내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즉 장거리 통신·컴퓨터·사무용 장비 등에 의한 기술적 집중화의 영향; 경제전반에서 전문지식 및 기술마케팅 방법, 기업의 통합·흡수다변화와 같은 기업조직변화에 대한 생산의 의존성 증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 상대적 우월성은 최상의 지식과 혁신을 투입하는 데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국제무역의 팽창 등의 기업환경 변화가 점차 국제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생산자서비스를 국지적 차원에서도 요구한다는 것이다(Daniels, 1987b). 한편 제조업분야에서 재화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술·기획 등 지식노동 서비스의 외부화도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Gillespie and Green, 1987). 이러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간의 분업관계의 발전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점차 생산자서비스를 지역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

고 있다.

지역의 생산자서비스 성장은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지만, 제조업의 존재를 지역의 생산자서비스 성장의 필수적 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Daniels, 1983). 첫째는 외부소유 기업의 문제이다. 본사가 외부 대도시에 입지한 지역 제조업 생산단위는 생산자서비스를 본사소재지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생산자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적 제조업의 기여를 과장하는 문제이다.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공공부문과 서비스업 자체의 수요도 제조업에 못지 않기 때문이다.

에 중간투입요소를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성의 변화는 흔히 서비스경제화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불려진다. 한국에서도 서비스부문의 고용인구는 1981년 이후 절반을 넘어서고, 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1981~91년 동안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생산자서비스는 서비스업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 1). 이로 보아 한국의 서비스경제화는 1980년초반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생산자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이 서비스경제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생산자서비스의 성장과 공간 분포 변화

#### 2) 생산자서비스의 공간분포와 그 변화

##### 1) 서비스경제화와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부문이 고용·산출·최종수요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특히 서비스부문내에서 기업의 생산활동

1991년 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를 보면 상위 6대 도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6%와 57.6%이다. 전국의 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 업체수의 51.9%와 50.1%가 상위 6대 도시에 있다. 6대 도시들중에서도 서울은 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부문 총 종사자의 1/3

표 1. 한국의 산업별 비중변화와 연평균증가율

업종	비중 (%)						연평균증가율 (%)					
	81		86		91		81~86		86~91		81~91	
	A	B	A	B	A	B	A	B	A	B	A	B
전 산업	a100	b100	c100	d100	e100	f100	5.7	5.4	4.7	4.4	6.5	6.1
제조업	38.8	15.0	37.1	13.1	37.3	14.1	4.8	2.6	4.8	6.1	5.9	5.3
서비스업	50.8	84.0	54.4	85.3	54.7	83.3	7.3	5.8	4.8	3.9	7.8	6.0
생산자서비스	13.7 *27.0	6.5 *7.7	14.9 *27.3	8.7 *10.2	16.2 *29.6	9.8 *11.8	7.6	13.1	6.6	7.1	9.4	14.1
금융	15.9	10.0	16.6	7.7	16.7	6.8	8.6	6.4	6.7	4.3	10.3	6.8
보험	9.4	2.9	11.3	4.3	12.3	5.0	12.7	28.6	8.6	10.6	15.2	31.3
사업서비스	11.1	16.0	9.6	11.8	12.6	12.4	4.3	5.2	13.9	8.3	11.9	8.8
사회서비스	63.6	58.4	62.5	76.1	58.4	75.8	7.2	15.2	5.1	7.0	7.9	15.6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주 : 1) A는 종업원수, B는 사업체수를 나타냄.

2) a, b, c, d, e, f의 실수치는 각각 6,603,303, 1,263,976, 8,856,648, 1,676,609, 11,356,078, 2,118,247명임.

3) \* 표시된 수치들은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서비스의 퍼센트임.

4)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것임.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을, 업체수의 1/4을 차지한다. 지난 1981년이후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지방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비중은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경기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2). 생산자서비스의 중심 부문인 사업서비스의 지역별 구성비와 그 변화는 2가지 특징이 있다(표 3). 첫째 사업서비스에서 상위 6대 도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서비스에서 서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다른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달리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서비스 및 생산자서비스의 최대 집적지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는 한편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중적 대도시 집적구조를 형성하면서 발달해 왔다. 특히 사업서비스는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대도시지향적이며, 특히 서울집중적이다. 생산자서비스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상호관련이 깊은 대기업 본사가 입지하고, 감독 통제기능·금융기관 및 기타 보완적인 경제활동이 집중된 국가적 대도시의 집적이익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2. 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의 지역별 구성비와 그 변화

지 역	서 비 스 업						생 산 자 서 비 스					
	81		86		91		81		86		91	
	A	B	A	B	A	B	A	B	A	B	A	B
대도시	58.4	51.7	57.9	51.8	58.6	51.9	54.5	44.2	56.4	48.0	57.6	50.1
지 방	41.6	48.3	42.1	48.2	41.4	48.1	45.5	55.8	43.6	52.0	42.4	49.9
수도권	46.3	41.0	47.6	42.9	48.6	43.6	45.2	37.8	47.5	41.4	48.2	42.6
서 울	35.4	28.7	34.3	28.4	33.8	26.9	35.0	25.7	34.9	26.7	34.3	26.4
인 천	3.1	3.3	3.4	3.6	3.7	4.1	2.5	2.5	3.1	3.2	3.4	3.7
경 기	7.8	9.0	9.9	10.9	11.1	12.6	7.7	9.6	9.5	11.5	10.5	12.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주 : 1) A는 종업원수, B는 사업체수 나타냄.

2)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의 6대도시를 말함.

표 3.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지역별 구성비와 그 변화(종업원수 기준)

지 역	금 용			보 험			사 업 서 비 스			사 회 서 비 스		
	81	86	91	81	86	91	81	86	91	81	86	91
대도시	69.0	66.8	63.6	64.9	58.6	63.8	70.4	74.5	75.1	46.5	50.4	50.9
지 방	31.0	33.2	36.4	35.1	41.4	36.2	29.6	25.5	24.9	53.5	49.6	49.1
수도권	58.7	58.4	55.4	54.6	48.5	48.0	59.6	62.1	67.3	37.9	42.4	42.2
서 울	50.8	49.8	44.2	46.5	37.1	36.4	48.2	52.2	56.0	27.0	28.0	26.4
인 천	2.3	2.5	2.8	2.4	3.3	3.9	3.1	3.1	2.6	2.5	3.3	3.7
경 기	5.6	6.1	8.4	5.7	8.1	7.7	8.3	6.8	8.7	8.4	11.1	12.1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3) 진주지역의 전국대비 산업별 비중과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진주지역이 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전국대비 비중을 각각 비교해 보면, 생산자서비스에서는 1981년 이후 약간 증가했지만 제조업에서의 비중보다 대체로 낮다. 즉 생산자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진주비중은 1981년에 종업원과 업체수를 기준으로 각각 0.6%와 0.5%에서 1991년에 0.7%와 0.6%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에 각

각 1.1%와 2.2%에서 0.7%와 1.5%로 하락한 제조업에서의 비중보다 낮다. 생산자서비스내에서는 사회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매우 낮다(표 4). 평균 종업원수를 전국 및 경남과 비교해 보면 1991년 진주의 제조업 평균 종업원수는 6.7명으로 전국의 14.2명과 경남의 23.1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사업서비스와 금융부문의 평균 종업원수에서도 전국과 경남에 비해 낮다(표 5). 전국이나 경남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진주의 제조업체 평균 종업원수는 진

표 4. 경남과 진주의 전국대비 산업별 비중

업종	경남						진주					
	81		86		91		81		86		91	
	A	B	A	B	A	B	A	B	A	B	A	B
전산업	7.6	8.1	8.2	7.7	8.3	8.0	0.6	0.7	0.6	0.7	0.6	0.7
제조업	9.6	7.8	10.8	6.8	10.9	6.7	1.1	2.2	0.8	1.9	0.7	1.5
서비스업	7.0	8.2	6.9	7.9	6.9	8.2	0.7	0.7	0.7	0.7	0.7	0.8
생산자서비스	7.1	8.5	6.8	7.8	6.7	7.6	0.6	0.5	0.7	0.6	0.7	0.6
금융	4.2	7.4	5.6	8.9	6.3	8.7	0.4	0.6	0.4	0.8	0.5	0.8
보험	5.6	8.3	7.3	7.4	6.3	7.0	0.9	1.1	0.8	1.0	0.8	0.7
사업서비스	4.6	5.6	4.7	5.1	3.9	5.1	0.5	0.5	0.3	0.5	0.3	0.5
사회서비스	8.5	9.3	7.4	8.1	7.5	8.0	0.7	0.5	0.7	0.5	0.8	0.6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주 : 1) A는 종업원수, B는 사업체수.

2) 제조업은 서부경남을 진주로 포함하여 전국과 대비함.

표 5. 전국·경남·진주의 평균 종업원수 변화

(단위 : 명)

업종	전국			경남			진주		
	81	86	91	81	86	91	81	86	91
전산업	5.2	5.3	5.4	4.9	5.6	5.6	4.6	4.7	4.3
제조업	13.5	15.0	14.2	16.7	23.7	23.1	6.5	6.6	6.7
서비스업	3.2	3.4	3.5	2.7	3.0	3.0	3.1	3.4	3.3
생산자서비스	11.1	9.0	8.8	9.3	7.9	7.8	13.7	10.7	10.1
금융	17.7	19.4	21.6	10.0	12.1	15.6	12.4	11.2	14.2
보험	36.3	23.6	21.8	24.5	23.2	19.6	28.1	17.8	24.0
사업서비스	7.7	7.4	9.0	6.3	6.7	6.8	7.8	5.3	5.0
사회서비스	9.9	7.4	6.8	9.1	6.7	6.4	13.9	10.6	9.2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영세성을 나타낸다.

진주지역의 생산자서비스가 제조업보다 비중이 낮은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제조업체 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의 환경이 열악하여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자서비스 측면에서 진주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표 5: 조혜영, 1989, 33; 한국은행 진주사무소, 1993, 1995) 생산자서비스 수요수준이 낮아 입지 유인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사업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영세성은 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결국 영세한 제조업체와 부족한 사업서비스가 진주의 지역경제 발전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주의 산업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1981년에 이미 서비스부문 고용의 비중이 57.6%가 되었고 91년에는 66.3%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종업원수와 업체수를 기준으로 각각 37.5%와 13.8%에서 22.6%와 11.3%로 현저하게 하락한 반면,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14.6%와 4.9%에서 18.4%와 7.8%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6). 결국 진주의 산업구조도 서비스경제화 추세를 경험하고 있으며 서비스경제화 현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

니라 지방적 차원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산업구조 변화로 보인다.

4. 사업서비스 외부화와 생산자서비스의 연계

1) 진주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조달방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즉, 생산자서비스를 내부화하여 기업 내부에서, 혹은 외부화하여 기업 바깥에서 조달할 것인가는 여러 생산활동 기능의 조직에서 초래되는 거래비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생산조직은 거래의 내부화가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올 때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기업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그 기능을 내부조직으로 두었을 때 소요되는 내부거래비용이 기능의 외부화를 통한 외부거래비용을 초과할 때는 수직적 분리가 발생한다(Scott, 1986, 220-221). 기업들은 이러한 생산자서비스를 기업조직 내부에서 충당해 왔으나, 최근 상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과 수반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치열한 기업간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서비스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표 6. 진주의 산업구성비 변화

업종	종업원수			사업체수		
	81	86	91	81	86	91
전산업	40,030	51,906	68,154	8,742	11,151	15,838
제조업	37.5	28.8	22.6	13.8	12.0	11.3
서비스업	57.6	63.2	66.3	85.4	86.4	86.1
생산자서비스	14.6 (25.4)	16.7 (26.4)	18.4 (27.7)	4.9 (5.7)	7.3 (8.4)	7.8 (9.1)
금융	9.8	11.0	12.8	10.7	10.5	9.1
보험	12.5	13.5	14.6	6.1	8.1	6.1
사업서비스	8.9	4.8	5.3	15.7	9.9	10.7
사회서비스	68.8	70.6	67.4	67.5	71.5	74.1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주 : 1) ( )는 서비스업 대비 생산자서비스 비중임.

2)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의 퍼센트는 서비스업에 대한 것임.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은 평균 72.7%의 높은 생산자서비스 외부화율을 보인다. 이들중 23개(약 70%) 업체들은 필요한 서비스의 절반이상을 외부의 전문 서비스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특히 17개(약 52%) 업체들은 무려 86% 이상의 높은 외부화율을 보인다. 이러한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평균외부화율은 다른 지역 업체들의 외부화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sup>2)</sup>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사업서비스 외부화율을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업체들은 낮게, 소규모 업체들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업체규모에 따라 외부화율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적으로 대규모 업체들은 필요한 서비스의 58.8%를 외부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들은 약 86%를 외부에서 공급받는다. 서비스의 51% 이상을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비율을 보면 대규모 업체들의 경우 16개 업체들중에서 9개 업체(약 56%)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17개 업체들중에서 14개(약82%)업체이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의 71%는 필요한 서비스를 약 86%이상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다(표 7).

규모에 따른 외부화 정도의 차이는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신성일, 1992)와 부산과 마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원경, 1991)에서도 나타났다. Perry(1990, 195-209)은 큰 규모 업체가 낮은 외부화율을 나타내는 이유로, ①서비스의 질 확보, ②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점, ③외부 공급업체로부터는 추구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얻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이는 업체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업종별로 진주지역 업체들의 외부화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섬유업체들은 필요한 서비스의 약 77%를, 조립금속업체들은 이보다 낮은 약 63%를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업체의 규모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도 외부화율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규모 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기타 업종업체들도 외부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설문조사된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자서비스의 외부화 정도는 대단히 높으며, 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도 외부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진주지역 설문업체들의 외부화율이 높은 이유는 업체들이 기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거나 신기술이나 제품의 고급화·다양화에 대한 욕구나 일상적 수요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서비스 관련기능을 내부에 두기보다는 아예 완전히 외부화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구입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응답 업체들의 절반이상인 86% 이상의 사업서비스 수요를 외부화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업체규모에 따라서 외부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의미가 다

표 7. 규모별·업종별 진주지역 제조업체의 사업서비스 외부화율

규모업종		외 부 화 율				평균	계
		0~25%	26~50%	51~85%	86~100%		
규모	대규모	31.3%	12.5%	25.0%	31.3%	58.8%	16 100%
	소규모		17.6%	11.8%	70.6%	85.9%	17 100%
업종	섬유	14.3%	14.3%		71.4%	77.1%	7 100%
	조립금속	13.3%	26.7%	33.3%	26.7%	63.3%	15 100%
	기타	18.2%		9.1%	72.7%	82.7%	11 100%
계		15.2%	15.2%	18.2%	51.5%	72.7%	33 100%

자료 : 설문조사

주 : 대소 규모 별 구분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하 표에서도 같음.

##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르고 따라서 그 구득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은 내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련기능들을 외부화하여 필요시에만 구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외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큰 규모 업체들은 사업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보다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업서비스 수요를 가지게 되지만, 내부에서 일정 정도 공급받기 때문에 외부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소규모 업체들(16개 업체)중 무려 12개 업체가 관련 기능을 완전히 외부화하고 있고, 내부화하고 있는 업체들중에서도 2개 업체만이 내부공급 비율이 외부공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대규모 업체들(15개)중 10개 업체가 관련 기능부서를 내부화하고 있으며 이들중에서도 규모가 큰 6개 업체가 내부 구매 비율이 높다는 것에서 분명해진다.

따라서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높은 생산자서비스 외부화율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다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나타난 결과라기 보다는,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영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진주보다 사업서비스의 공급여건이 유리한 부산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외부화율이 진주보다 낮은 것은 외부화율이 사업서비스의 특성보다는 기업자신의 특성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개발보다는 노후화된 생산기술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진주지역 업체들의 높은 외부화율은 진주지역 업체들이 영세하고 그만큼 지역경제가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 2) 진주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연계: 수요측면

#### (1) 생산자서비스내 하위부문별 연계

수요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연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설문에 응답한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은 필요한 생산자서비스의 68%를 진주지역에서

구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각각 17%와 14%씩 공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보험서비스는 각각 88%와 82%를 진주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중 사무관련서비스는 진주지역에서 71%,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각각 18.8%와 11%를 구입한다. 생산관련 서비스는 진주지역과 서울에서 동일하게 37%를, 그다음으로 부산·경남에서 21%를 공급받는다. 은행·보험·법률관련·회계관련·기타사무관련·인력공급·광고·건축서비스들은 진주지역에 대한 연계가 강한 반면, 공학관련·기술검사관련·공정개발·제품개발·제품디자인·기계장비임대 서비스들은 지역의 연계비율이 더 높다(표 8 참조).

표 8. 진주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

부 문	지 역				
	진주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
은행	87.9%	8.6%		3.4%	
보험	81.8%	9.1%		9.1%	
사업서비스	58.7%	16.1%	0.6%	22.6%	1.9%
사무관련	71.1%	10.8%		18.1%	
생산관련	36.5%	21.2%	1.9%	36.5%	3.8%
대여관련	65.0%	25.0%		5.0%	5.0%
계	68.1%	13.6%	0.4%	16.6%	1.3%

자료 : 설문조사

주 : 사무관련은 법률, 회계, 기타사무, 자료조사, 경영자문, 광고업이다. 생산관련은 건축, 공학, 기술검사, 공정개발, 제품개발, 제품디자인이며; 대여관련은 인력공급, 기계장비임대 서비스업이 포함됨.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는 서비스의 유형과 수준(계층)에 따라 상이하다. 은행이나 보험서비스와 같이 일반화된 서비스는 대부분 진주권내에서 공급받고 있다. 사업서비스중 사무관련 서비스 등 중간계층의 서비스는 진주권에서 상당한 부분을 공급받는 점에서 금융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서울에 대한 연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사업서비스중 생산관련 서비스와 같은 고차계층의 서비스는 서울지역에 대한 연계가 진주지역에 대한 연계만큼이나 강하게 나타난다. 서비스

계층에 따른 공간연계의 차이는 진주지역 업체들이 일반화된 서비스는 공간적 근접성에 따라, 전문적 고급 서비스는 양질 및 전문성에 따라, 그리고 중간계층 서비스는 공간적 근접성과 양질 및 전문성이 혼합된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일반화된 서비스는 진주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있지만, 고차계층의 전문서비스는 진주지역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불충분하거나 쉽게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진주지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의 애로사항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된다. 즉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대부분은 진주지역에서 부족한 사업서비스업체 불충분한 서비스의 질·전문성 결여 등의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고차계층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규모 업체들은 애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차계층의 서비스 충족을 위해서는 원거리 공간연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에서 진주지역 업체들의 고차계층 서비스의 서울 연계가 강한 것은 서울에서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2) 제조업 특성에 따른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연계

### ① 업종별 공간연계와 그 특성

진주지역의 대표적 제조업종인 섬유·조립금속·제지업체들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 패턴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자. 섬유업체들은 대체로 필요한 서비스를 대부분 진주지역(약 70%)과 서울(약 20%)에서 공급받는다. 금융서비스는 전부 진주지역에서 공급받고, 사무관련서비스는 진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69%, 다음으로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각각 67%와 13%를 구매하고, 생산관련서비스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53%, 진주와 부산·경남에서 각각 33%와 13%를 구입하고 있다. 조립금속업체들은 67%를 진주지역에서, 다음으로 18%와 13%를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공급받는다. 금융서비스는 80% 이상을 지역내에서 구매하고, 사무관련서비스는 진주지역과 서울에서 각각 약 72%와 약 21%를 구입하며 생산관련서비스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39%를, 부산·경남과 진주지역에서

각각 약 30%와 26%를 구득한다. 제지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섬유, 조립금속 업체들과 유사한 공간연계를 보인다. 즉 사무관련서비스의 80%를 진주지역에서, 20%를 서울에서 공급받고, 생산관련서비스는 57%를 진주지역에서, 약 27%와 약 14%를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공급받는다.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생산자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계층별로도 유사한 공간연계를 보인다. 각 업종은 은행과 보험 등 일반화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간적 근접성에 따라 아주 강한 지역내 편향적 구매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계층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내에 강한 연계를 보이면서도 서울에 대한 연계를 일정 정도 가지며, 고차계층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질 및 전문성에 따라 서울지역에 대한 강한 비지역적 연계패턴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에서 밝혀진 업종간 유사한 공간연계 패턴은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공간연계가 제조업체의 특성, 즉 업종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관통하는 생산자서비스의 성격에 좌우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고차계층 서비스의 경우 서울에 대한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생산자서비스의 입지가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된 산업 공간구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② 기업규모별 공간연계와 그 특성

진주지역의 제조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연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의 큰 규모 업체들은 진주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56%,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각각 25%와 16%를 구입하였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진주지역에서 85%, 부산·경남과 서울에서 10%와 5%를 구매하였다. 은행과 보험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구매비중을 보면 규모가 큰 업체와 작은 업체들 모두 진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급받는데, 큰 업체들은 각각 83%와 69%를 구득하였고, 작은 업체들은 93%와 100%를 구입하였다. 사무관련 서비스와 같은 중간계층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구매비중을 보면, 큰 업체들은 진주지역에서 57%, 서울에서 29%, 부산·경남에서 14%를 구입하였으나 작은 업체들은 진주지역에서

##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약 94%,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각각 35%를 구득하였다. 생산기술관련 서비스와 같은 고차계층 서비스에 대한 구매비중을 보면 규모가 큰 업체들은 서울에서 55%, 진주지역에서 23%, 부산·경남에서 16%를 공급받았으나 작은 업체들은 진주지역에서 57%, 부산·경남에서 29%, 서울에서 14%를 공급받았다(표 9, 10).

표 9. 큰 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

부 문	지 역			
	진주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은행	83.3%	13.3%		3.3%
보험	69.2%	15.4%		15.4%
사업서비스	46.4%	16.5%	1.0%	33.0%
사무관련	56.9%	13.7%		29.4%
생산관련	22.6%	16.1%		54.8%
대여관련	60.0%	26.7%		6.7%
계	56.4%	15.7%	0.7%	25.0%

자료 : 설문조사

표 10. 작은 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

부 문	지 역				
	진주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
은행	92.9%	3.6%		3.6%	
보험	100%				
사업서비스	79.3%	13.8%		6.9%	
사무관련	93.8%	3.1%		3.1%	
생산관련	57.1%	28.6%		14.3%	
대여관련	80.0%	20.0%			
계	85.3%	9.5%		5.3%	

자료 : 설문조사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이 규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전반과 그 계층에 따라서 상이한 공간연계를 나타낸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서비스의 질과 전문

성에 따라 외부지향적 구매를 행하고,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공간적 근접성에 따라 지역 편향적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체 규모별 경향은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신성일, 1992; 김원경, 1991)에서도 확인되었다. 보통 공간 근접성에 따르는 일반화된 저차계층 서비스의 구매에서 대규모 업체들의 지역내 구매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질과 전문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차계층 서비스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더욱 공간근접성 논리에 따른 것 분명해졌다. 규모에 따른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연계 패턴의 차이는 업체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의 양·종류·계층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충족 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대개 영세하고 일반화된 기술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낮은 수준의 단순한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고 이런 서비스는 자기지역내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간적 근접성에 따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일수록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 보다 양질의 다양한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런 서비스는 보다 상위계층의 지역에서만 구매될 수 있기 때문에 질과 전문성에 따라 외부지향적인 구매가 이루어진다.

### ③ 사장의 출신지별 공간연계와 그 특성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주체인 기업주의 정보량과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 있다. 공간연계 패턴에서도 기업주의 의사결정 행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고향은 공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친숙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지역 설문업체들의 사장출신지별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연계를 보면 진주출신 기업인의 업체는 전반적으로 진주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약 71%를, 부산·경남과 서울에서 각각 약 19%와 약 9%를 구입하고 있다(표 11). 경남 출신 기업인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사장이 진주출신인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

부 문	지 역				
	진주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
은행	81.8%	13.6%		4.5%	
보험	85.7%	14.3%			
사업서비스	61.5%	23.1%		12.8%	2.6%
사무관련	78.3%	13.0%		8.7%	
생산관련	18.2%	45.5%		27.3%	9.1%
대여관련	80.0%	20.0%			
계	70.6%	19.1%		8.8%	1.5%

자료 : 설문조사

그러나 사장이 타시도 출신인 기업체들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약 51%를 구입하고 진주지역에서는 약 38%만을 구입하고 있다(표 12). 경남과 타시도출신 기업인 업체간의 서비스연계의 차이는 서비스의 계층에서도 나타난다. 저차계층 서비스의 경우에는 출신지에 관계없이 유사하나 중간 및 고차계층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이하다. 즉 저차계층 서비스의 공간연계패턴에서 경남과 비경남출신 기업인 업체가 모두 지역내 지향을 나타내는 반면, 중간 및 고차계층 서비스의 경우 경남출신 기업인 업체들은 여전히 지역내 지향적이지만 비경남출신 기업인 업체들은 서울에 대한 강한 연계를 보인다. 이는 저차 서비스 구매에서 경남과 비경남 출신 모두 공간근접성 논리를 따르지만 고차 서비스의 구매에서는 경남출신이 공간적 근접성을, 비경남출신이 비지적 연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타시도 출신이 비지적 연계패턴을 나타내는 이유가 이들의 다수가 대규모가 업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크지만 사장이 경남출신인 업체들은 진주에 가장 강한 연계를 보이며 공간적 근접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표 13). 서비스구매에서 대체로 경남출신은 내부지향적이고 비경남출신은 외부지향적인 경향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첫째 인

간의 공간정보는 대체로 자신의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확대된다. 이점에서 현재 기업 활동 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비경남출신기업이 경남출신 기업인보다 활동공간의 인식범위가 더 넓을 수 있고 따라서 외부지향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둘째 주관적인 측면에서 경남출신 기업인들은 진주지역에 대한 애착이 비경남출신보다 더 강하고, 따라서 지역내 연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2. 사장이 타 시도출신인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

부 문	지 역				
	진주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
은행	83.3%	16.7%			
보험	33.3%			66.7%	
사업서비스	28.6%	3.6%	3.6%	60.7%	3.6%
사무관련	33.3%			66.7%	
생산관련	9.1%		9.1%	72.7%	9.1%
대여관련	60.0%	20.0%		20.0%	
계	37.8%	5.4%	2.7%	51.4%	2.7%

자료 : 설문조사

표 13. 대규모 기업중 사장이 경남출신인 제조업체의 생산자서비스 공간연계

부 문	지 역				
	진주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
은행	84.2%	15.8%			
보험	71.4%	28.6%			
사업서비스	47.1%	23.5%		23.5%	
사무관련	56.7%	26.7%		13.3%	3.3%
생산관련	20.0%	20.0%		53.3%	6.7%
대여관련	66.7%	16.7%			16.7%
계	58.4%	22.1%		15.6%	3.9%

자료 : 설문조사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3)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업체의 제조업에 대한 공간연계: 공급측면

진주지역에 입지하여 생산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들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통해서 공급측면의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 연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진주와 같은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생산자서비스 시장규모가 작은 까닭에 기업서비스 업체에 의한 생산자서비스의 사적 공급이 미약하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적 성격의 단체 혹은 연구소가 중요한 전문적 생산자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와 특히 면담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대표적인 공공적 생산자서비스 기관인 경상대학교부설 생산기술연구소, 한국건설연구원, 진주상공회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역연계를 분석하여 그 특성과 역할을 살펴 본다.

(1)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의 생산자서비스 연계: 사례1

지금까지 생산기술연구소는 크게 각종시험분석, 원가계산, 진단 등의 저차계층 서비스와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고차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산기술개발과 같은 고차 서비스보다 저차계층 서비스공급활동을 주로 수행했다. 먼저 생산기술연구소가 의뢰받은 각종시험, 분석, 진단, 원가계산 등의 업종 및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진주지역의 건설업체들과 진주지역의 관공서가 생산기술연구소의 주요 고객이다(표 14). 서울과 진주지역 건설업체들은 각각 전체수요의 약 26%와 약 18%를 차지하고 진주지역의 관공서들은 약 24%를 차지한다.

표 14. 시험분석, 원가계산, 진단 등을 의뢰한 업체의 분포(1992~94 기준)

업종	지역											
	진주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		계	
건설업	77	17.5%	35	8.0%	3	0.7%	116	26.4%	6	1.4%	237	54.0%
제조업	30	6.8%					13	3.0%			43	9.8%
관공서	103	23.5%	11	2.5%	1	0.2%	6	1.4%	19	4.3%	140	31.9%
기타	18	4.1%					1	0.2%			19	4.3%
계	228	51.9%	46	10.5%	4	0.9%	136	31.0%	25	5.7%	439	100%

자료 : 경상대학교부설 생산기술연구소

표 15. 지역컨소시엄에 참여한 제조업체들의 업종지역 분포(1993~95년)

업종	지역											
	진주진양			서부경남			기타			계		
	93	94	95	93	94	95	93	94	95	93	94	95
화학	21.4%	16.7%	6.3%				7.1%			28.5%	16.7%	6.3%
비금속광물									6.3%			6.3%
기계금속	57.1%	33.3%	31.3%	14.3%	25.0%	18.8%		25.0%	37.5%	71.4%	83.3%	87.5%
계	78.5%	50.0%	37.6%	14.3%	25.0%	18.8%	7.1%	25.0%	43.8%	14/100%	12/100%	16/100%

자료 : 경상대학교부설 생산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의 산학연 지역권소기업에 참여한 제조업체들의 업종 및 지역별 분포는 기계금속업이 1995년에 약 88%를 나타내고 경남이외 지역의 비중은 약 44%를 나타내는데, 이들이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비스공급지역 분포는 진주진양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경남이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생산기술연구소의 서비스공급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5).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건설업체들에 각종 시험, 분석, 진단 등의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지역의 조립금속, 화학 제조업체들과 연계하여 생산기술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수행된 활동은 기술개발과 같은 고차계층 서비스보다는 시험분석 등 저차계층 서비스 부문이 현저했다. 면담조사에 따르면, 3가지 측면에서 기술개발 활동의 부진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산학연 공동권소기업의 형태로 수행되는 생산기술개발은 1993년에 설립된 지역권소기업의 역사가 짧아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상남도와 상공자원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지역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다. 즉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기술 개발은 많은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상품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중소업체들에게는 아직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개발활동 부진은 지역중소기업들의 생산기술개발 수요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연구소 관련자들은 지역권소기업이 연륜을 쌓게 되면 기술개발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소의 서비스 제공의 공간범위는 전반적으로 지역내 연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층별로는 저차계층 서비스의 경우 지역내 연계와 서울에 대한 연계가 강하고, 고차계층 서비스의 경우 지역내 연계가 아주 강하다. 저차계층에서 서울에의 연계가 강한 것은 서울에 본사가 있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진주지역 현장에의 서비스이다. 고차계층

서비스에서 지역내 연계가 강한 것은 생산기술연구소의 제조업체와의 정보교환과 대면접촉이 공간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까닭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 단계에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의 활동은 다른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내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데 중심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생산기술연구소의 서비스 제공의 공간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수출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국견직연구원의 생산자서비스

연계: 사례2

진주 상평공단에 자리한 한국견직연구원은 1988년 지역 상공업체들의 출자와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국견직연구원의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범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연구원 회원업체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견직연구원의 48개 회원업체 모두가 진주에 입지하고 있어 서비스 공간연계는 100% 지역내로 나타났다(표 16). 견직연구원과 면담조사를 통하여, 진주지역에 입지한 약 100여개의 견직업체들중 연구원 활용빈도가 높은 업체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20여개의 업체들이며 소규모 업체들은 연구원을 활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견직연구원의 서비스제공의 공간범위는 아주 좁고 진주지역이라는 국지적 지역연계를 보인다. 이러한 연계패턴은 다음 두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견직업체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진주지역에 입지해 있고(한국견직연구원, 1994, 189) 이들 업체들은 연구원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대면접촉 등 활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두번째로 높은 집중지인 경인지역의 견직물업체들은 서비스의 대면접촉의 필요성과 즉시성이 공간거리 때문에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경인지역의 업체들은 다수가 염색업체들인 바, 가까운 서울이나 대구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견직연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공급자가 근거리에 입지한다는 것이다. 한국견직연구원이 전국 유일한 견직물 연구기관이면서도 지역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원측은 섬유 특히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견직물산업이 쇠퇴산업으로 간주됨으로써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일천한 설립역사로 인하여 충분한 연구인력과 기자재가 확보되지 못하여 다른 유사기관들보다 탁월한 경쟁력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한다. 비록 전국적 서비스범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한국견직연구원은 진주지역에 밀집한 지역 견직물업체들의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견직업체의 규모와 관련시켜 한국견직연구원 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소수의 대형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소규모 영세업체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견직업체들과 견직연구원사이에는 극복해야할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업체의 경우 기술개발이나 생산자서비스의 중간투입을 통해 제품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규모의 업체들은 공간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생산자서비스자체에 대해 수요가 적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미 일반화된 기술을 사용해서 단순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영세중소기업체에게 연구원의 서비스수준이 너무 높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3) 진주상공회의소의 생산자서비스  
연계: 사례3

상공회의소는 각종 사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앞의 생산기술연구소나 견직연구원과 다른 유형의 생산자서비스 공급기관이다. 전반적으로 진주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의 공간범위는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서부경남 이내로 한정된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기업정보인 DNS<sup>3)</sup>를 이용한 업체들은 진주지역의 기계금속과 섬유·의복업체들이 압도적이다(표 17). 섬유·의복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진주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다.<sup>4)</sup>

표 16. 한국견직연구원의 회원업체 분포지역(95.12.31. 현재)

지역 업체	진주 진양	서부경남	이외경남	경북대구	수도권	계
수	42	4				46
%	91.3	8.7				100

자료 : 한국견직연구원, 1995, 견연연보

표 17. 진주상공회의소의 DNS를 이용한 업체들의 업종별·지역별 분포(기간 : 1993. 9.-94. 8.)

업종	지역					
	진주 진양		서부경남		계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제조업	58.0	56.5	23.2	8.5	81.2	65.0
음식료품	2.9	0.2	5.8	0.9	8.7	1.1
섬유의복	17.4	26.5	4.3	2.8	21.7	29.3
목재종이	4.3	2.5			4.3	2.5
화학	4.3	8.9	2.9	0.5	7.2	9.5
비금속광물	7.2	6.0	4.3	2.5	11.6	8.5
기계금속	21.7	12.3	5.8	1.8	27.5	14.1
건설업	11.6	31.1	1.4	1.3	13.0	32.4
기타	4.3	2.4	1.4	0.2	5.8	2.6
계	73.9	90.0	26.1	10.0	69	100
					928	100

출처 : 진주상공회의소, 1996.



DNS를 이용하는 정보는 90% 이상이 법률 분야이며 생산기술 분야는 매우 미미하다(표 18.). 진주상공회의소의 무역관련증명 발급·특허관련자료 제공·산업인력정보센터 이용 등의 서비스 가운데, 산업인력정보센터를 이용한 업체가운데 서부경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농촌지역에 입지한 업체들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것을 나타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7%로서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9).

진주상공회의소 서비스의 공간범위는 앞의 다른 공공적 생산자서비스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내 연계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상공회의

소의 역할은 수출기반산업보다는 지역업체들의 일상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애로사항의 해결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공회의소의 강한 지역내 연계의 성격은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으로서 이윤추구적이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사적 서비스와 달리 애초에 입지자체가 지역적으로 적절히 안배되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관할구역<sup>5)</sup>안에 있는 업체들로 한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생산자서비스 유형과 대상지역을 관련시켜 분석해보면, 무역관련증명서비스의 경우 진주의 비중이 서부경남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지만 산업인력정보(단순생산직 인력)서비스의 경우 두 지역간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진주의 업체들이 수출지

표 18. 진주상공회의소 DNS를 통해 이용하는 생산자서비스의 종류(건수기준)

부 문	지 역					
	진주권		서부경남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금융관련	29	3.1	2	0.2	31	3.3
법률관련	789	85.0	52	5.6	841	90.6
생산기술관련	45	4.8	8	0.9	53	5.7
기 타	3	0.3			3	0.3
계	866	93.3	62	6.7	928	100

자료 : 진주상공회의소, 1996.

표 19. 진주상공회의소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들의 분포(1995년, 건수기준)

업 종	지 역											
	진주 진양			서부경남			이외경남			계		
	A	B	C	A	B	C	A	B	C	A	B	C
제조업	97.1%	66.7%	50.7%	2.9%		46.3%				100%	66.7%	97.0%
섬유의복	19.7%	21.1%	17.9%			14.9%				19.7%	21.1%	32.8%
화 학	58.0%	14.0%	14.9%			13.4%				58.0%	14.0%	28.4%
기계금속	19.4%	31.6%	11.9%			14.9%				19.4%	31.6%	26.9%
기 타				2.9%		3.0%				2.9%		9.0%
건설업		1.8%									1.8%	
금융보험		3.5%									3.5%	
기 타		3.5%			21.1%	3.0%		3.5%			28.1%	3.0%
계	97.1%	75.4%	50.7%	2.9%	21.1%	49.3%		3.5%		350 *100	57 *100%	67 *100%

출처 : 진주상공회의소, 1996

주 : 1) A, B, C는 각각 각종무역관련증명발급, 특허관계자료운영, 산업인력정보센터운영(구인신청) 서비스를 나타냄.

2) 각 란의 퍼센트는 \*란(총계)에 대한 각각의 퍼센트임.

##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향적이고 산업재산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서부경남업체들은 단순숙련노동을 이용하는 납품영세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서부경남권 내에서도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에 생산자서비스이용의 질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진주상공회의소의 DNS이용실태의 특성은 법률 및 규제부문과 시세 및 동향과 같은 일반적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생산기술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는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주지역의 업체들은 그들의 사업행위를 규제하는 틀, 즉 법률이나 제도와 경제동향이나 주가시세 등 일반적 정보들에 대체로 관심이 많고, 제조업체들의 생산제품은 하청 납품업체로서 영세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 (4)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생산자서비스 연계: 사례4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들을 보면 모두 광역적으로 진주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이다.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내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 및 장비 기타 등의 조립금속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영업점의 생산자서비스 제공의 공간범위는 진주지역내에 국한되어 완전한 지역내 연계를 보인다. 완전한 지역내 연계패턴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영업점의 공공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은 진주·통영·삼천포·거제 등 4개 시와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8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기 때문에(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관할구역외의 지역 업체로부터 신용보증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영업점에 소개한다.

보증기금 진주지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조사된 생산자서비스 제공과정의 특성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보증기금 진주지점의 보증신청업체에 대한 기각된 업체비율, 즉 기각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즉 진주지점의 기각율은 약 10~20%인데 이것은 보통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모험자본회사의 신기술사업화업체에 대한 자금제공신청 기각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둘째는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일반 신용보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보증기금 진주지점의 주된 업무는 기술신용보증이면서도 이것보다는 일반신용보증의 비율이 2대 8로 훨씬 더 높다. 이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은 실제로 기술지향업체와 일반업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금융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 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설립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신용보증시 고려하는 기준들을 대체로 관대하게 적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이 명시적 설정한 고유한 보증기준인 ①주제품의 시장성 ②기술력 ③경영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적극적 의지 ④안정적 고정거래처 확보 및 영업력 ⑤재무상태보다는, 일반적 기준인 ①금융기관 대출금 장기연체 ②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업장·거주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③경영자의 신용불량거래처 규제 등의 충족여부에 따라 신용보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수혜 업체들중 조립금속업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 업종업체들이 다른 업종업체들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거나 기술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단지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표 20).

## 5.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 연계의 특성과 지역정책적 함의

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은 그것이 경제발전의 선도자라기보다는 추종자 혹은 수혜자라는 것이며 제조업의 성장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로서 서비스업의 고용성장이 후속적으로 일어나며 서비스산업 자체로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권오혁·한표환, 1994, 27). 그러나 산업들의 새로운 정보기술 적용과 경쟁적 다변화 등의 덕택으로 산업 고용과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을 넘어서면서 서비스부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특히 생산자서비스는 지역경제발전에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생산자서비

표 20.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 신용보증의뢰업체의 업종별 분포(95년 말 기준)

업종	진주지역			
	업체수		금액(백만원)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소계	81.6%	100%	89.0%	100%
음식료업	5.9%	7.2%	7.1%	7.9%
섬유의복	6.3%	7.7%	5.6%	6.3%
목재가구	2.1%	2.6%	0.7%	0.8%
종이제지	0.4%	0.5%	2.1%	2.3%
화학물고무	4.3%	5.3%	2.7%	3.0%
비금속광물	5.3%	6.5%	8.4%	9.5%
제1차금속	1.2%	1.4%	1.0%	1.1%
조립금속	49.3%	60.5%	51.1%	57.4%
기타	6.8%	8.4%	10.3%	11.6%
광업	0.2%		0.1%	
건설업	4.1%		4.9%	
도소매업	11.9%		4.6%	
운송보관업	0.8%		0.4%	
기타업	1.4%		1.0%	
계	512		54486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 1996.

스업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지역을 넘어서는 서비스 활동을 지역경제의 기반산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지역제조업체에 중간투입요소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생산자서비스 산업 자체가 고도 성장부문이라는 점도 있다. 과거에는 경쟁력으로서 생산비절감을 중요하게 평가했지만, 최근의 경향은 적절한 가격에 질을 향상하고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경쟁력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정보·디자인·기술 등 서비스적 요소가 보다 강조된다. 그래서 우수하고 다양한 생산자서비스의 지역내 존재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관건이 되며 새로운 기업을 지역내로 유도하는 견인력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육성과 유치가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진주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한국은행 진주사무소, 1993, 1995). 이 때문에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관련 생산자서비스를 유인하기에 진주지역의 매력은 부족한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만으로 진주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산자서비스의 정책적 유도를 통하여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서비스연계를 보면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지역의 연계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규모가 큰 업체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에 관건인 고급 생산자서비스의 지역내 충족이 어렵고, 진주지역의

##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고급 생산자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주지역의 제조업체들 특히 건설한 중소기업들의 측면에서 보면 진주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것의 질적 수준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함의한다. 특히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지역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저발전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흐름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타 지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자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연계패턴을 보면, 대부분 지역내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세 제조업체들과 서비스공급자간에 일정한 격차가 존한다. 서비스공급자들의 연계패턴이 자기지역 편향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의 제조업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단지 지역적인 수준의 서비스공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율이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다는 사실은 진주지역에서 제공되는 생산자서비스의 수준이 그들의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수준이 높은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진주라는 지방도시의 '지역계층에 적절한 수준'의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이 진주지역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의 수준 문제는 진주지역에서 제공되는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진주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전국이나 경남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윤동기의 사적 기술관련 생산자서비스의 입지유인이 약하다는 점과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의 공백을 공공기관의 생산자서비스가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주와 같은 지방중소도시에 적절한 생산자서비스의 성격은 일차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적 생산자서비스 입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적 함의가 크다. 그러나 앞의 분석과 같이, 생산자서비스 공급범위가 지역적 수준으

로 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지역적으로 특화시켜 전국적인 차원의 서비스 연계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6. 요약 및 결론

현재 선진국 경제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에서도 고용과 생산 모두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제조업생산에 중간 투입요소를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이다.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부문내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두드러진 성장을 서비스경제화로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 서비스경제화의 한국적 전개과정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고, ② 수요측면에서 진주지역 제조업체의 외부화 현황과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연계와, ③ 공급측면에서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업체의 제조업 연계를 분석하여, ④ 생산자서비스 육성의 지역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첫째, 1981년 이후 이미 서비스경제화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부문보다, 생산자서비스부문은 서비스부문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대도시지향적인 입지특성으로서, 한편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2중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진주지역 설문제조업체들은 일반화된 서비스의 경우는 가까운 진주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주로 저차계층 서비스에 대한 지역내 연계가 강하고, 규모가 큰 업체들은 고차계층 서비스에 대한 서울로의 연계가 강하다. 이것은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지역제조업체들이 지역내에서 수요충족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생산자서비스의 제조업 업종별 연계패턴은 유사하며, 진주와 경남지역 출신 제조업체 경영자들이 타 시·도 출신자보다 강한 지역내 연계를 보였다.

셋째,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진주지역은 공공기관들이 중요한 생산자서비스 공급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는 주로 진주지역내 제조업체들과 공간연계를 맺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의 역할보다 지역내의 제조업체들에게 각종 생산기술관련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한편 진주지역의 제조업체들과 생산자서비스간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즉 대기업은 고차서비스를 지역의 부로부터 조달하며 소규모 기업은 지역내 생산자서비스 이용율이 낮다. 소기업의 낮은 생산자서비스 이용율은 그들이 대부분 하청기업으로서 단순제품을 일반화된 기술로 생산하고 있어 생산자서비스 투입에 관심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들이 주는 지역정책적인 함의는 진주지역의 생산자서비스의 수준은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높거나 아니면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낮다는 생산자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이다. 특히 기술 및 정보와 같은 고차 서비스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한편으로는 공공적 생산자서비스의 지역 산업에 대한 적실성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우월한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육성정책과 생산자서비스의 특화 등을 통한 수출기반산업화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생산자서비스 기관의 공공성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우선 생산자서비스와 지역경제와 공간연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축적의 하나이며, 나아가 지방도시에서 생산자서비스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정책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다른 지방도시의 생산자서비스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수요측면에서의 생산자서비스분석에 이용된 설문자료의 수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공급측면의 생산자서비스 분석에서 공공적 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고찰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도시 진주지역경제에서 제조업체와 생산자서비스의 연계를 파악하는 초보적 탐색에 불과하고, 앞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註

- 1) 서부경남권이란 부산경남 지역을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경남권, 창원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경남권, 그리고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서부경남권은 서부경남이 중부나 동부 경남에 비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낙후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지역개발 단위로 많이 사용되는 지역개념이다(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1).
- 2) 김원경(199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마산지역 제조업체들의 사업서비스 외부화율은 대략 58%, 부산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외부화율은 약 54%로 나타나고 있다.
- 3) DNS(Dacom Network Services)는 진주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산실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최신 산업정보 및 각종 정책자료에 대한 기업정보통신서비스이다.
- 4) 진주지역의 산업에서 섬유외복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로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들중 대부분은 견직물 업종들이다(김상대, 1994).
- 5) 진주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은 진주시(과거의 진양군 포함)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령군이다.

文 獻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199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설명회.  
 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1, 서부경남지역 개발의 낙후요인분석  
 권오혁·한표환, 1994,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지방 유치 및 육성, 연구보고서, 93-12(제177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신용보증업무안내.  
 김상대, 1994, 진주지역 실크산업: 현황과 과제,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연계

- 경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진주지역 중소기업 성장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
- 김원경, 1991, **사업서비스와 제조업의 연계: 부산과 마산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중수, 199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 진주상평공단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9집,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삼천포상공회의소, 1995, **회원명부**.
- 신성일, 1992, **제조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연계: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1990,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차별적 성장과 공간적 분업화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6권 제2호, 123-147.
- 조혜영, 1989, **지방공업단지의 공업구조 및 입지적 특성과 지역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청주공업단지와 진주상평공업단지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진주상공회의소, 1994, **사업보고서**.
- 진주상공회의소, 1996, 95, 96, **진주상공현황**.
- 한국건설연구원, 1994, 95, **견연연보**.
- 한국은행 진주사무소, 1993, **진주상평공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결과**.
- 한국은행 진주사무소, 1995, **경남서부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결과: 농공단지의 활성화방안 제시**.
- Allen, J., 1988a, Towards a post-industrial economy?, in **Restructuring Britain: The Economy in Question**(Allen, J. and Massey, D., ed.), 91-135.
- Allen, J., 1988b, The Geographies of Services, **Uneven Redevelopment: Cities and Regions in Transition**, Hodder & Stoughton, 124-141.
- Bearse, P. J., 1978, On the intra-regional diffusion of business service activity, **Regional Studies**, 12, 563-578.
- Bergsman, J., 1972, The agglomeration process in urban growth, **Urban Studies**, 9, 263-275.
- Coffey, W.J. and Bailly, A.S., 1990, Service industries and the evolution of production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nvironment & Planning, A.**, 22, 1607-1620.
- Coffey, W.J. and Polese, M., 1989, Producer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A policy-oriented perspective,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67, 14.
- Daniels, P.W., 1983, Business service offices in British provincial cities: location and control, **Environment and Planning, A**, 15, 1101-1120.
- Daniels, P.W., 1985, Service industries: Some new directions, in **Progress in Industrial Geography**(Pacione, M., ed.), London, Croom Helm, 111-141.
- Daniels, P.W., 1987a, The geography of servic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1(3), 433-447.
- Daniels, P.W., 1987b, Producer services research: A lengthening agenda, **Environment & Planning, A**, 19, 569-574.
- Gillespie, A.E. and Green, A.E., 1987, The changing geography of producer service employment in Britain, **Regional Studies**, 21, 397-412.
- Gillespie, A., Goddard, J., Robinson, F., Smith, I. and Thwaites, A., 1985, The effects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less-favoured regions of the community, **Studies Collection Regional Policy Series**, 33, Brussels, 140-148.
- Goe, W. R., 1990, Producer services, trade and the social division of labour, **Regional Studies**, 24(4), 327-342.
- Healey, M.J. and Ilbery, B.W., 1990, **Location and Change: Perspectives on**

- Economic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rn, J., 1987, Growth and change in the service sector of the U.S.: A spatial perspective, *Annals of the A.A.G.* 77(3), 353-372.
- Marshall, J.N., 1984, Business services, the regions & regional policy, *Regional Studies*, 19, 353-363.
- Marshall, J.N., Damesick, P. and Wood, P., 1987, Understanding the location and the role of producer services in the U.K., *Environment & Planning, A*, 19, 576-578.
- Marshall, J.N., Wood, P. and Daniels, P.W., 1987, Producer services and uneven development, *Area*, 19(1), 35-41.
- Marshall, J.N., 1985, Research policy and review 4: Services in post industrial economy, *Environment & Planning, A*, 17, 1155-1167.
- McDermott, P.J., 1976, Ownership,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Scottish electronics industry, *Regional Studies*, 10, 319-335.
- O'Faerrell, P.N. and Hitchens, D.M., 1990, Producer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Key conceptual issues of taxonomy and quality measurement, *Regional Studies*, 24(2), 163-171.
- Perry, M., 1990, Business services speculation and regional economic change, *Regional Studies*, 24(3), 195-209.
- Polèse, M., 1980, Regional demand of business services and inter-regional services flows in a small canadian region, *Papers of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50, 151-163.
- Scott, A.J., 1986,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Labo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62(3), 215-231.
- Wheeler, J.O., 1984, Corporate spatial link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he role of metropolitan hierarchy, *Annals of the A.A.G.*, 76(2), 262-274.
- Wheeler, J.O. and Dillon, P.M., 1985, The wealth of the nation growth, *Urban Studies*, 9, 263-275.

## Regional linkages of Producer Service —A Case Study of Chinju Region—

Kim, Duk-Hyun\*

### Summary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regional linkages of producer services in Chinju region. Producer service appeared as the most rapid growth sector in service industry. In Chinju region, manufacturing firms purchase generalized producer service within the region. However the higher-order service, they demand; the remoter metropolis especially Seoul, they depend on. Linkage patterns among manufacturing sectors are similar; but then the firms whose managers are from Chinju or Gyeong-nam region had stronger regional linkages than others.

Public institute such as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Korea

Silk Research Institute have made important role as suppliers of public producer services in Chinju Region. As present stage, their services of industrial technology, financing, and information are not only fit regional demand but also spatially limited within region. The facts that large firms purchase high-order services from other region and small firms have not good demand of producer service suggest regional policy implication about supplying relevant producer service in the region.

**Key words** : Chinju Region, Producer service, Public producer service, Regional linkage,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